

# 예비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 미혼 남성을 중심으로 -

최 현 숙(신라대학교 연구원)

본 연구는 결혼 전의 '소속되지 않은 젊은이' 단계인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부모 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형성,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아버지 됨의 준비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5회기 '나의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됩니다' '좋은 아버지 되기 I' '좋은 아버지 되기 II'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로 7명의 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3일에서 2004년 11월 7일까지 주 1회, 매 회기 120분씩 부산지역의 B교회에서 실행되었다. 프로그램 전후로 아버지의 수용성-거부성 척도, 아버지역할 자신감 척도를 사용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회기마다 과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괄평가의 형태를 가진 객관식 및 주관식 평가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가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척도인 아버지의 수용성-거부성 척도의 사전-사후 간의 유의미한 차이검증을 통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보다 더 수용적이고 거부적이지 않다는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이해와 관계 재정립의 목적에서 다소간의 성과가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둘째, 아버지역할 자신감의 사전-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목표인 아버지 됨에 대한 올바른 가치정립과 부모로서의 자질향상을 통한 아버지역할의 자신감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에서 다소간의 성과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셋째, 예비아버지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의 하위영역 중 아버지역할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목표인 생애주기변화에 따른 자녀이해와 기술 습득으로 아버지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목적에서 성과가 있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생애주기적 관점에 따른 예비아버지 교육은 연구대상자와 아버지, 그리고 미래의 자녀를 함께 설정하여 프로그램화함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미래를 계획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이해하고 관계를 재정립함으로 미래의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로서의 준비를 하게 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